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이창호(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송민지(중앙대학교 · 사회학과 석사과정수료)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시기는 상급학교인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일종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학과 진로라는 전환기의 변화에 직면한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세대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의 영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상호 교차되면서 자녀의 발달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파악해보면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절대적 부족,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상대성과 피상성, 사회적 연결망은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해와 해석을 보인다.

둘째, 부부의 이혼 및 재혼 여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학과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간 사생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생계 및 자녀의 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소문', '평판' 등의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는 부모의 출신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들의 부정적인 태도 및 부모-자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한 이중언어 교육의 어려움, 예체능에 대한 자녀들의 많은 관심과 부모의 방관적 태도, 다양함보다는 평범함을 선호하는 극단적인 정체성의 선택, 자녀의 청소년기에 대한 부모의 이해부족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다문화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 방과

후 생활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판이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 사이에서의 왕따(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왕따 현상은 가정의 경제사정, 부모의 문화적 차이, 다자녀로 인한 돌봄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다.

이상과 같이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진학과 진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바탕이 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 다문화청소년, 전환기, 질적연구방법, 사회적 연결망, 부부관계, 세대, 왕따(집단따돌림)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2년에 이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부부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진학과 진로의 양상을 파악
-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의 문제를 분석
- 이주민 집단 공동체 속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상황을 파악

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3차 년도 종단연구를 실시함.

2. 연구방법

- 심층면접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인 사회문화적 경험과 이해의 수준을 분석함.

3. 주요결과

- 1)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파악

-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절대적 부족,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상대성과

피상성, 사회적 연결망은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해와 해석을 보임.

2) 부부의 이혼 및 재혼 여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학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간 사생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생계 및 자녀의 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소문’, ‘평판’ 등의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음.

3)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 파악

- 부모의 출신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들의 부정적인 태도 및 부모-자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한 이중언어 교육의 어려움, 예체능에 대한 자녀들의 많은 관심과 부모의 방관적 태도, 다양함보다는 평범함을 선호하는 자녀들의 극단적인 정체성의 선택, 자녀의 청소년기에 대한 부모의 이해부족 등으로 나타남.

4) 다문화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부모-자녀의 문제점 파악

-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방과 후 생활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판이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남. 여기서는 오히려 다문화청소년 사이에서의 왕따(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기도 함. 이 왕따 현상은 가정의 경제사정, 부모의 문화적 차이, 다자녀로 인한 돌봄의 부재 등에서 비롯됨.

4. 정책제언

-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진학과 진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바탕이 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이론적 배경	4
II. 질적조사의 기본디자인	11
1. 질적조사의 공통적인 주안점	13
2.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주안점	14
3. 연구 대상자	15
III.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	17
1.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자녀의 전환기에 미치는 영향	19
2. 부부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진학과 진로의 양상	26
3.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의 문제	33
4. 이주민 집단 공동체 속의 다문화청소년	46
IV.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59

표 목 차

〈표 Ⅰ-1〉 다문화가정 학생 수	6
〈표 Ⅰ-2〉 연도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6
〈표 Ⅰ-3〉 부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6
〈표 Ⅱ-1〉 연구대상자 특성(자녀/어머니)	16
〈표 Ⅱ-2〉 연구대상자 특성(교사)	16

그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분석틀	9
【그림 Ⅲ-1】 C-8군이 7개월 전부터 핸드폰에 모아놓은 화성 FC 사진	37
【그림 Ⅲ-2】 B초등학교의 교실 표지판과 계단	47
【그림 Ⅲ-3】 C교회 전경 및 아카데미 시간표	49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12년에 이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시기는 상급학교인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로서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일종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자녀의 진학과 진로가 보다 구체화되는 시기이지만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아울러 수반될 수 있다. 특히 전환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달상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더욱 큰 변화를 수반한다. 이는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체적·정서적인 개인적 변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유순화, 2007: 355-356). 또한 이러한 전환기는 자녀들이 학업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서 자녀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부모학습관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하다(김홍석, 심혜숙, 2009).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이주자 집단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가정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전환기를 겪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진학과 진로 탐색에 작용하는 독립적인 요인들과 요인들 간의 교차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초등학교 6학년생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발달특성과 내면의 변화를 밝히는 일은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이 본격화되는 앞으로의 다문화사회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탐색이라는 전환기의 변화에 직면한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연결망, 부부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세대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서로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상호 교차되면서 자녀의 발달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작용한다.

2. 이론적 배경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의 시기에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에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동시적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유순화, 2007: 356).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이러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연구 및 개입이 있어 왔으나 한국사회에서는 이 시기의 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유순화, 2007: 357-358). 국내에서는 뒤늦게 전환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지난 2010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게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전환기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엄선영, 이강희, 2012: 91). 그러나 사회적 상황과 맥락이 일반 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기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첫째, 부모 및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망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적 연결망 역시 일반 가정의 학부모 및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이은혜 1997; 유계숙, 1999; 박영애, 원효종, 2003)가 연구의 주요한 주제였으며 최근에는 가족구조뿐 아니라 자녀의 친구연결망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대되었다(조진만, 강정한, 이병규, 2012). 그러나 이주민인 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은 미시수준과 거시수준을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Granovetter, 1973). 특히 Granovetter(1973)의 연구는 “약한 연대의 강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장을 구하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직계가 죽이나 가까운 친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간접적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계층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포르테스, 2003[1998]).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주자의 연결망(migrant networks)은 이동에 있어서의 비용과 위험을 낮춤으로써 국제적 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주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Massey et.

al., 1993). 이주자들의 경우 사회적 욕구상황에서 공식적인 지원조직에 접근하기 보다는 친구 및 직장동료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집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상, 장임숙, 2008). 그러나 취업이 아닌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결망 부분은 그동안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이 강조되는 사회의 경우 다문화가정 부모와 청소년들은 사회적 연결망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연결망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지역의 사회적 연결망을 조사하여 각 지역에 확산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거주지역과 분리되는 곳을 선택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인종적·민족적 게토(ghetto)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이주민들이 게토를 형성하는 이유는 주류사회의 방식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자 외부와 구분된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의 자원으로서 독특한 문화의 가치는 중시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김이선, 김인순, 이창호, 박준규, 2008).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사회적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부재하여 거주국의 삶이 힘들게 느껴질 경우 언제든 게토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 게토를 형성했을 경우 이들 자녀의 교육은 과연 질적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관계 연구이다. ‘세대(generation)’의 분류 방식은 너무나 모호해서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인 세대의 구분은 친족출계, 생애단계(life stage), 코호트(cohort),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Kertzer, 1983). 일반적으로 이주민 연구에서의 ‘세대(generation)’구분은 일반적인 세대구분의 범위에 더해 출계집단 범위뿐만 아니라 고향과 거주국간의 거리의 측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Fomer, 2009). 즉 세대라는 표현 안에는 고향과 거주국의 지리적, 인식적, 문화적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들의 세대구분이 인구센서스 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날 만큼 본격적인 국제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이주민의 유입을 경험한 많은 사회에서 이주민의 세대구분 및 세대 간 상호관계는 오늘날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이민법 개정 후 대량 입국한 이주민 세대의 연구와 분석 작업이 근래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Portes, 1993; Rumbaut, 1997; Rumbaut & Portes, 2006; Rumbaut, 2007; Forner, 2009), 한국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특히 결혼이주민 유입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2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6,954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 자녀의 학령별 분포는 초등학생 72.0%, 중학생 20.5%, 고등학생 7.5%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어서 아직 세대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주민 2세대들의 연령이 낮다고 해서 가족 간의 상호관계가 단순히 부모의 보살핌의 관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녀들의 성장단계 초기부터 연구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1-1 다문화가정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총원	초	중	고
2006	9,389	7,910	1,139	340
2007	14,654	12,199	1,979	476
2008	20,180	16,785	2,527	868
2009	26,015	21,466	3,294	1,255
2010	31,788	24,701	5,260	1,827
2011	38,678	28,667	7,634	2,377
2012	46,954	33,792	9,647	3,515
구성비(%)	100.0	72.0	20.5	7.5

* 출처: 교육부(2012), “다문화 학생현황” 각 년도

** 다문화가정 학생=국제결혼가정 자녀+외국인가정 자녀

표 1-2 연도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단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추정)	2014(추정)
전체학생대비 비율	0.26	0.35	0.44	0.55	0.70	0.88	1.10

* 출처: 교육부(2012)

표 1-3 부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연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기타	계
학생수(명)	15,882	12,933	7,553	3,408	1,136	1,021	5,021	46,954
비율(%)	33.8	27.5	16.1	7.3	2.4	2.2	10.7	100.0

* 출처: 교육부(2012).

이주민 자녀의 세대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 및 정책의 대상이 세대별로 현저하게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정책 대부분은 이주민 당사자에 집중하거나 이주민과 자녀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가족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정치적 요인 등으로 이주한 성인 이주자와 달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주했거나 부모의 정착사회(host society)에서 태어난 자녀는 가치관, 정체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포르테스(Portes, 1993)는 이민 2세대의 경우 그들이 거주국사회에서 겪는 경험은 부모세대와 다르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대 이민자 분석에 썼던 틀과 범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연구에서 지배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개념이었던 ‘두 문화 사이의’(between two cultures), ‘절반세대’(the half-way)와 같은 개념들은 오늘날 진화하는 환경에서 동시에 공존하는(co-existing), 두 문화들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ukadam & Mawani, 2006). 이들은 이주민 자녀인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공동체(community)가 일종의 ‘새로운 현장(field)’이며, 이들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성을 생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진입중인 한국사회의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세대인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앞으로의 성장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양적 데이터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주민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포함하는 질적 데이터의 구축과 분석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서구사회들 역시 그동안의 이주민 관련 연구에는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이웃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을 뿐 1세대와 2세대의 경험을 포함하는 이들 이주민 가족의 사생활 부분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Forner, 2009). 따라서 앞으로 이주민 1세대와 성인기로 이행하고 있는 2세대로 이루어진 이주민 가족 내의 상호세대간 긴장과 갈등을 포함하는 각각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구분에 대한 고려와 질적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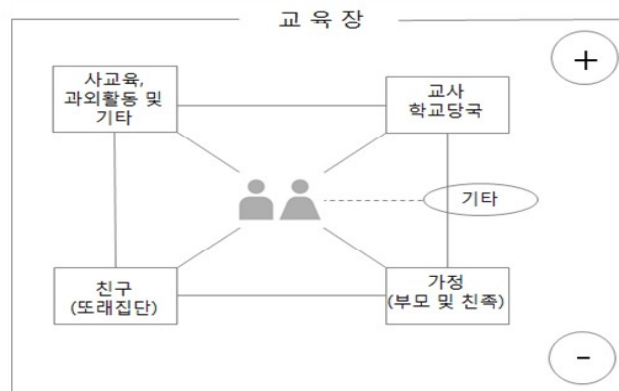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 외에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사회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학교생활을 거치면서 청소년은 이차집단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쌓게 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은 한국가정 청소년과의 미묘한 차이와 차별들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또래집단과의 관계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교의 대응에 따라 이들의 학교생활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학교 친구들과의 친분 정도, 교사와 학교 측의 관심 정도와 그 내용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6학년(13세)인 이들 청소년들의 경우 여전히 가정으로부터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학교생활(적응, 학업능력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환경과 학교생활 간의 관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되어온 한국사회의 독특한 교육열과 교육구조는 점점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영역을 구분해보고 이 영역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영역들로는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영역이 있다. 가족은 일차집단이라는 점에서 친밀성을 키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오늘날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이미 선행학습을 거쳐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을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변수이다. 최근 몇 년간 사회문제로 쟁점화된 ‘왕따’, ‘이じめ’ 등은 기본적인 교우관계의 단절은 물론 크나큰 심리적 상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은 청년과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언어적인 문제나 이질적인 외모 등의 이유로 학급친구들로부터 자칫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와 학교기관과의 관계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는 미드(Mead)가 말하는 ‘중요한 타자’로서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문제들을 수습하고 조율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도 교사의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한국가정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은 마련해 놓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넷째, 학교생활과 학업능력과의 관계이다. 대체로 학교생활을 잘 해내는 청소년들이 학업능력도 좋은 편이지만, 반대로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학교생활도 원만하게 해나간다. 오늘날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오늘날 학원은 필수과정이 되었다. 물론 학원은 단순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또 다른 장이다. 그런데 학원의 수준은 지역(학군)이나 부모들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들의 부모가 지닌 능력에 따라 학원의 수준과 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연구분석틀

이처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계성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위의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느냐(+), 정반대로 이 영역 모두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교생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제 II 장

질적조사의 기본디자인

1. 질적조사의 공통적인 주안점
2.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주안점
3. 연구 대상자

제 II 장 질적조사의 기본디자인

질적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과 달리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식을 말한다(윤택림, 2013). 따라서 설문의 핵심적인 구성 속에는 행위자의 경험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요소들이 개입되는지, 이 상황을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6학년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핵심적인 구성에는 가정, 학교, 공동체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이 교차하는 상호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면서 가정이나 부모의 비중보다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점차로 늘어나므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과 인터뷰를 포함하였다.

1. 질적조사의 공통적인 주안점

1) 생활문화(시간/공간)

- (1) 자신의 1년/1주일/1일의 시간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 (2) 자신의 1년/1주일/1일의 공간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는가?
- (3) 어떤시간이 제일 좋은가/나쁜가?
- (4)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가/나쁜가?

2)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망

- (1) 자신의 1년/1주일/1일의 시간동안 누구와 주로 만나는가?
- (2)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 (3)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나쁜가/그저 그런가?
- (4)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5)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사건 혹은 이벤트)

- (1) 주변 사람들과 모여서 무슨 일을 같이 한 적이 있는가?
- (2) 주변사람과 언성을 높여 싸운 적이 있는가? 누가 제일 미운가?
- (3)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 (4)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이며? 왜 기억에 남게 되었는가?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전환기 다문화청소년 연구'의 주안점

1) 학부모

- (1) 하루 시간 중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가?
- (2) 하루 시간 중 누구와 주로 만나는가?
- (3)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가?(특히 자녀 교육 부분은?)
- (4) 자녀의 학교생활 중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 (5) 제일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인가?

2) 청소년

- (1) 하루 시간 중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는가?
- (2) 어떤 활동이 가장 의미가 있나?
- (3) 하루 시간 중 누구와 주로 만나는가?
- (4) 만나는 사람 중 의미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3) 교사

- (1) 학교 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생활은 어떠한가?
- (2)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반응하는가?
- (3)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다문화청소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3.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12년도 질적패널로 구축된 18 명의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및 조사대상 자녀의 담임교사 2명을 인터뷰 하였다. 내용 중에는 인터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이름 모두를 알파벳과 일련번호로 처리하였다.

1) 자녀/부모 집단

표 II-1 연구대상자 특성(자녀/어머니)

자녀	성별	어머니	모친생년	모친 출신국가	거주지
C-1	남	M-1	1963	중국(조선족)	경기도 수원시
C-2	남	M-2	1962	중국(조선족)	경기도 성남시
C-3	남	M-3	1967	대만	서울시 강서구
C-4	여	M-4	1972	일본	경기도 이천시
C-5	남	M-5	1973	한국	경기도 파주시
C-6	남	M-6	1987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C-7	여	M-7	1971	중국(조선족)	경기도 수원시
C-8	남	M-8	1971	중국(조선족)	경기도 화성시
C-9	남	M-9	1967	한국	서울시 성동구
C-10	여	M-10	1963	일본	경기도 가평군
C-11	여	M-11	1963	한국	경기도 가평군
C-12	여	M-12	1976	중국(조선족)	경기도 구리시
C-13	남	M-13	1964	일본	경기도 수원시
C-14	남	M-14	1973	일본	서울시 성동구
C-15	여	M-15	1973	중국(조선족)	서울시 강동구
C-16	남	M-16	1981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C-17	남	M-17	1973	중국	경기도 시흥시
C-18	남	M-18	1965	일본	경기도 부천시

2) 교사

표 II-2 연구대상자 특성(교사)

교사	성별	학교 소재지	학교 내 다문화관련 시설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비고
T-1	여	서울시 성동구	무	
T-2	남	경기도 가평군	유	

제 III 장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

1.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자녀의 전환기에 미치는 영향
2. 부부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진학과
진로의 양상
3.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의 문제
4. 이주민 집단 공동체 속의 다문화
청소년

제 Ⅲ 장

전환기의 다문화청소년

본 연구의 대상자이기도 한 현재 13세(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들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전환기로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되어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욱 많이 받는 시기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부터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의 갈등,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 부모와 자녀의 세대 및 문화적 갈등, 지역사회 내 지원의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진학 및 진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을 몇 가지 요소들로 나누어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자녀의 전환기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의 대상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대기업 정규직 사원이고 중국 출신의 어머니가 큰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의 한 청소년의 경우 한국보다는 어머니의 연결망이 있는 중국에서 국제학교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분포한 빈곤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한국 내 연결망의 부재로 인해 아이를 무작정 학원에 보내거나 그런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는 자녀를 집에 거의 ‘방치’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부모들은 자녀들의 적성이나 진로, 취미활동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진로에 있어서 6학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라는 구조적 상황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를 소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빈곤한 가정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만의 고유한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동반된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독특한 상황과 맥락에 작동하게 되면 그 양상은 일반적인 주류사회 구성원의 가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가 다문화가정에 미치는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 및 교육정책의 차원에서만 다문화가정이 지원된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반 가정 자녀들보다 사회적 적응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본 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가 각각의 다문화가정이 경험세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감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생활양식으로 표현되는지 기술하고 이것이 자녀의 일상생활 및 교육, 상급학교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1)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절대적 부족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였다.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냥 막연히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나 학원 이름이 괜찮아서 다니고 싶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 무조건 학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한다’는 답변이 많다. 이것은 진심으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다기 보다는 맞벌이로 인해 자녀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릴 것을 걱정한다거나 부모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가족 1>(C-1(남)/ M-1)¹⁾의 M-1 씨는 현재 수원 시내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월~토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간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 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아이가 집에 있으면 나쁜 친구들과 사귄 수 있고 컴퓨터에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5학년 때는 C-1이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보다 오히려 한국어 쓰기를 잘 못해서 보습학원으로 바꿨다. C-1을 제외한 가족 성원들

1) C-1의 어머니인 M-1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한족출신 중국인과 결혼을 했으나 이혼한 후 다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의 갑작스런 사별 후 다시 과거에 이혼했던 중국인 남편과 재결합하여 현재 중국에서 태어난 큰 아들과 한국에서 사별한 남편 사이에 태어난 C-1과 함께 수원에 살고 있다.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M-1과 달리 남편과 큰 아들은 아직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모두 가정 내에서 한국어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중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후 어머니는 한국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보습학원을 선택했으나 집 주변의 학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M-1 (자녀가) ○○학원에 다니다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가 병날까봐 집에서 실컷 놀아라(하고) 안 보냈어요. 집에서도 돌볼 사람이 없고 저는 직장 다니고 집에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어쨌든 학원에 다녀야 친구도 사귀고 그렇게 있잖아요. 찾다가 니가 마음에 드는 거 찾아라 해서 지가 혼자 찾은 거예요, △△△ 학원을...

C-1은 2시 30분경에 하교를 하고 집에서 잠깐 컴퓨터를 한 다음 4시 30분부터 집 앞까지 오는 학원셔틀차량을 타고 학원에 가서 3시간 정도 학습을 한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체육, 미술, 음악을 제외한 학교 수업의 전 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며 수강료는 한 달에 24만원 정도이다. 아이가 학원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관측전략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원 △△△ 학원은 어떻게 보내시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좋다고 그래서?(어머니에게 질문)

C-1 아니요. 제가 그냥 장난감 받으려고 간 건데.

면접원 아... 학교에서 오라고 나눠 줬구나.

C-1 아니요. 안 나눠 줬는데. 다니면 준다고 그래서...

면접원 아. 네가 간 거야? 가서 장난감 받으러 갔다가 “엄마 나 다닐래” 그런거야?

C-1 아니요. 원래는 제가 문화상품권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문화상품권이 갑자기 안 된다면서 뭘 사줬어요.

두 번째는, 다른 학원처럼 시험을 통한 능력별 반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비교적 힘들지 않아서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면접원1 너는 왜 (친한 친구가 다니는) □□(학원) 안 갔어?

C-1 탈락했어요.

(중략)

C-1 □□학원이 짜증나요.

면접원1 왜? 떨어트려서?

C-1 아니요.

면접원1 그럼 왜?

C-1 힘들어요.

(중략)

면접원2 그러면 다음에 또 시험 봐서 □□학원 가고 싶어?

C-1 (시험을) 안 볼 거예요.

C-1이 다니는 Y초등학교에서는 ‘사회복지실’이 있어서 장애아 및 다문화청소년의 상담을 맡는다. 2013년 현재 이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교에서 3명뿐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실에서는 매년 1번씩 C-1과 상담을 하고 부모에게 전화로 간단히 상담내용을 알려준다. 그동안 C-1의 어머니가 받은 상담 내용은 C-1이 학업 스트레스로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주의력 결핍)과 학원보다는 ‘문화센터’에 다니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C-1은 ‘문화센터’라는 이름이 이상해서 다니던 학원에 계속 다닌다고 고집했고 자신은 학교에서 소리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이의 주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의력 결핍을 치료하는 병원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어머니는 자녀를 병원에 보내지 못한다.

이러한 학원에 대한 ‘자녀가 원하는 대로’의 결정은 자녀의 진학, 진로에도 반영된다. 어머니는 아이의 진로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M-1 나중에 뭐 지가(아들이) 중학교 가면 공부 더 잘하면 대학 가면 지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어떻게 채도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 결정도 안 되고, 안되면 중학교 기술 배우는데 그런데도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M-1은 자녀를 기술중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희망과는 달리 기술중학교나 한국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전문계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정보 습득의 초기 과정인 인터넷 검색을 M-1이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중학교의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또 하나는 ‘마이스터(meister)’라는 단어가 외래어식 표현이라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 역시 장래 희망이 ‘군인’인데 이 직종을 선택한 이유는 ‘총 들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C-1은 군대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비웃는데 격분해 친구들과 자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반가정의 경우와 다문화가정을 비교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맞벌이, 정보 및 사회적 연결망의 부족으로 인해 학원과 진로를 선택하는 경로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우 방과 후 교육방식이나 진로의 선택이 또 다른 의외의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즉, 한국사회의 빈번한 외래어 사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정보취득 방식의 서툴름,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혜택을 본다는 주변의 놀림 등으로 인한 제한된 선택이 그것이다.

2)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상대성과 피상성

조사한 다문화가정 중에는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적 연결망이 다른 다문화가정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설령 다른 다문화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경제수준이 높고 교육의 경쟁의 심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사회적 연결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사례가족 2>(C-2(남)/ M-2²⁾)의 M-2의 경우 앞에서 다룬 다문화가정과 다르게 비교적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분당지역에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지만 시간적으로 유연한 근무를 해왔다. M-2는 자신의 가족이 분당의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남들은 부자동네에 산다고 부러워하지만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부자동네에서 가장 빈곤한 차상위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원래 현재 살고 있는 옆 동네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자녀의 중학교 학군 때문에 전세로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올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그녀는 자녀 친구의 학부모들과 자주 인사를 나누면서 자녀의 진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2) M-2는 중국에서 살다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했다. 남편은 공장에 근무하고 있다. 그녀 역시 한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으며 이주여성 상담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허리디스크 때문에 지난 2월부터는 가사 일만 하고 있다.

편이다. 그러나 M-2는 그러한 관계가 ‘피상적’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C-2가 지금 수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피상적인 정보만을 접할 뿐이며 깊이 있는 관계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M-2가 중국에서 왔다는 점 때문에 다른 어머니들이 편하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자녀가 태어나 다른 어머니들 보다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며, 교육 정보라는 것이 자녀의 학년이 늘어나면서 ‘주고받는’ 호혜성을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반해 M-2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이다.

M-2 (그동안 직장에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일을 하다가 건강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엄마들하고 안 했잖아요. 제 일하느라고. 그래, 안 하는 데도. 갑자기 친하려고 하니깐 친할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하하.

면접원 그 전에는 친했던 분이 계셨어요?

M-2 유치원 때는 애가 어리고. 그래, 같이 놀다보니. 그래, 친하잖아요. 근데 인제는 애가 크고 하니깐 그 엄마들도 엄마들끼리 노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면접원 그럼, 요 아파트에서 (C-2와) 같은 반은 없나요?

M-2 같은 반 있어요...

면접원 그 엄마랑 같이 좀 얘기도...

M-2 공짜.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이런 건 되는데. 깊이 있게 친하는 건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왔지. 어, 온 것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엄마들보다 거의 열 살, 그 이상으로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 그 쯤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저는 그렇다 해서 뭐 나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줄 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는 거 없으니까, 줄 거도 없잖아요. 하하하. 그런 쯤 차이가...

할 수없이 M-2는 최근 인터넷을 접하다가 우연히 ‘분당엄마따라잡기’라는 인터넷카페를 알게 되어 그곳에다가 질문을 몇 가지 올려놓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M-2가 인터넷으로 사회적관계망을 얼마만큼 더 늘려나갈지는 미지수이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여건과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은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자녀의 교육과 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주 후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잘 확립된 경우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례가족 3> C-3(남)/ M-3³⁾이 있다. 이 경우 부모는 한국에서 두세대 이상을 거주한 화교(華僑)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적 연결망이 오늘날에는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적 여건과는 달리 사회적 연결망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 여하에 따라 더욱 빠르게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보편적 복지의 관점보다는 차이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연결망은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공동체에 대한 사례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결혼 이주를 택한 가정의 사례로는 일반적으로 ‘통일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출신 이주민으로서 부족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일정 정도 조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주자들의 경우 종교방침 상 다자녀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3~4명씩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가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도가 어렵고, 더구나 아이 중 아픈 아이가 있으면 모두를 돌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를 매개로 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이들 엄마들은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아주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하고 작업 자체가 육체적 노동이 많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실제적인 양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3) C-3의 아버지는 화교로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화교학교를 다녔고 대학은 대만에 있는 대학교의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어머니 M-3은 대만(臺灣)출신으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으며 간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다. C-3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에서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였으며, C-3의 조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C-3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금 엄격하게 아이들을 양육 지도하고 있었다. 큰 딸이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장 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이미 충분했다. 특히 C-3의 아버지는 오랜 한국 생활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던 주위 인맥(화교모임, 한국인모임-동호회활동)과 사업경험을 토대로 한국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방법, 걱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교육이나 자녀의 미래 진로 방향 결정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C-3 자신 역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학교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교우관계가 원만하였다.

<사례가족 4> (C-4(여)/ M-4)⁴⁾의 경우 자녀는 C-4 양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그 중 2명은 뇌쪽에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남편은 유통업 관련부분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가 부족해서 M-4는 오전에 아이들을 집근처의 시부모에게 잠깐 맡겨 등교를 돕도록 하고 식당에 출근한다.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이며 근무시간 이후에 귀가해 아이들을 돌본다. M-4는 쾌활한 성격에 생활력이 강하지만 네 아이 돌봄과 가사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식당일 등의 양립은 매우 고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아버지는 거의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어머니는 통일교를 통한 지역네트워크에서 알게 된 동향 사람들(먼저 정착한 '언니'들)이 있어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고민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망은 정서적인 안정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하지만 자녀양육 및 교육 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연결망의 성격이 교회와 동향(일본)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성적, 중학교 진학 등 아이의 진로나 장래에 대해서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 연결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경우 연결망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즉 사회적 연결망이 종교나 출신국 사람들로 편중되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동과 읍면 단위)에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구축된다면 C-4에게 시급한 아동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이 가능하다.

2. 부부의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진학과 진로의 양상

1)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중학교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매우 커다란 장애 요인이다. **<사례가족 5>(C-5(남)/ M-5)⁵⁾**의 경우 C-5는 시청의 영재원 교육에

4) M-4는 일본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에 근무하다가 1993년부터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자가 되었다. 이후 1995년에 일반적으로 결혼식과 유사한 교회의 '축복식'을 거쳐 1999년에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다.

5) M-5는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파키스탄에서 이주하여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한국국적 귀화자)과 결혼을 하여 3남매를 두었다. 현재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영어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후 종교문제를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남편과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로 현재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남편에게서 지급받으며 자녀 모두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이다.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만큼 축구에도 소질이 많다. 그러나 어머니인 M-5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기도, 축구를 계속하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일단 스카우트 제의는 거절하고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부를 계속하는 경우 큰 딸처럼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현재 영어보습학원 운영과 이혼 후 양육비로 받는 100만원을 가지고는 큰 딸의 학비도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C-5가 공부보다는 축구선수로 성장할 것을 원해 어머니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진학을 생각해 봤지만 학비 외에 지출되는 경비가 ‘집 한 채가 날아갈 정도로’ 많아서 거의 포기한 실정이다.

면접원 그런데 축구로 성공을 하려면 축구부 있는 학교로 가야 할 텐데. 저도 축구부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축구 한건 아니지만 중학교부터 훈련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러던데요. 거기 외에는 관심이 없고 스카우트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 K중학교는 축구부 없지?

C-5 있긴 있는데 축구부는 아니고 가끔 대회는 나가고. 대회 열리면 모집해서 하고. 축구부는 있다고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면접원 축구부 있으면 감독, 코치 다 있는데...

C-5 네.

면접원 그럼 확실하게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M-5 아니 이게...큰 애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세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니까 공부도 괜찮은 것 같고. 스카우트 한다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면접원 돈이 얼마 든다는 이야기 하던가요?

M-5 네, 매월 50만원 든다고 하고. 캠프 같은 거 하면 또 따로 들고...

면접원 그리고 운동선수 하는 애들 보면 부모들이 늘 쫓아다니더라고요. 지방 가면 가고. 감독들 식사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M-5 네. ‘집 한 채가 날라 간다’는 그 정도의 자금도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M-5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아이의 진학에 보탬이 되어서라도 되어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삶의 기반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요인 외에 ‘이혼’이 이들 가정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적 요인들도 존재한다. 즉, 이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양육비 증액을 문제 삼을 경우 이주민 사회에서 남편 및 자신의 평판이 더욱 나빠져서 오히려 그나마 지급받던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자녀 3명은 모두 M-5가 키우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혼 후 자녀를 모두 M-5가 양육하게 될 경우 양육비 100만원으로는 학비에 보태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다. M-5는 인권단체나 이주민 단체에 이 문제를 터놓고 상담 받고 싶어 하지만 이주민 사회 내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면접원 사회단체에는 가입 안하셨나요? 이주민 인권 단체나. 혹시 ○○○씨(다문화가족협회 대표) 아세요?

M-5 알아요.

면접원 그 모임에 가세요?

M-5 ‘터’라는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지금 거기까지 역량이 못 미쳐서요. 최근에 한 번 갔었어요.

면접원 거기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면...

M-5 터놓고 하면 거기서 파키스탄 사회에 다 퍼지게 되고... 제 깊은 문제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치유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치부가 드러나고 양육비가 연관이 되어서. 나랑 애 아빠랑 완전히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맞물렸고 그러다가 감정이 치우치면 이 사람도 양육비를 안보내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면 아무래도 치부를 내가 건드리는 거니까 양육비를 보내는 면에서 원활할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해도 깊은 것은 말을 못하겠고 갈 수 없는거죠.

면접원 이주민 사회가 워낙 또 좁으니까요.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혼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날 경우 현재 M-5 집에서 운영 중인 영어학원의 수강생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각한 학원 운영난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M-5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포함되어 일부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은 최초에 50만원이 지급된 후로는 지금까지 10여 만 원 정도 지원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제 M-5는 자녀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진학 문제를

조정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큰 딸을 외국어고에서 일반 인문계고로 전학시킨 다음 C-5의 희망인 축구를 포기시키고 파주시청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영재반에 계속 다니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진학과 진로를 포기시킨다는 것이 부모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간 사생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생계 및 자녀의 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소문', '평판' 등의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 재혼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한 상황과 맥락을 거의 알고 있지 않은 베트남출신 엄마(27세)가 전 처 소생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가족 6>(C-6(남)/ M-6)의 경우 C-6의 어머니는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부모로서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 둘(3살과 생후 2개월)의 양육을 돕기 위해 친정에서 온 어머니와 집안 내에서 바쁘기만 하다. 아이들 역시 새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편이다.

어머니 M-6은 C-6의 아버지와 2006년에 결혼했다. M-6은 초혼, C-6의 아버지는 재혼이다. M-6의 친정어머니는 6개월 비자를 받고 딸을 돕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상태다. 그러나 C-6의 가정은 아버지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어머니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월 소득 30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집 근처로 이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녀가 가사에 매달리면서 네 자녀의 교육과 진로문제를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 자녀는 총 4명인데 첫째와 둘째 아들(C-6)은 자신이 낳은 친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M-6은 첫째, 둘째의 학교생활과 교육문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친자녀인 어린 셋째(3살), 넷째(생후 2개월)를 양육하느라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생각할 여력이 없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사회 전반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즉 M-6은 한국의 교육제도와 환경, 부모들의 계층별 재생산전략,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진입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C-6의 교육문제에 대한 면접원의 모든 질문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원을 언제 다니기 시작했는지, 언제 그만두었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다.

M-6은 그동안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눈치를 살피고 아이를 대하는데 많이 어려워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어머니의 상황은 꿀 먹은 벙어리 냉가슴앓이 일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첫째와 둘째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어머니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기도 하다. 그녀는 1987년생으로 만 26세다. 베트남에서도 거의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의 기회도 많지 않다.

C-6은 M-6을 어머니로 따르고 어린 동생들도 잘 보살피고 있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매우 의젓한 아이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와 그리 대화가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기도 했는데 C-6은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거나 말을 흐렸다. 어머니 M-6이 “나와 말할 때 답답하다고 한 적이 있잖아.”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C-6은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다.

어머니와의 이별, 아버지의 재혼으로 등장한 새어머니. 어린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가 있었겠지만 C-6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만큼 성장해있지 않은 듯하다. 그 문제가 심각할 고민이 될 만큼 발현되지는 않았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인상을 쓴다거나 귀찮아하는 투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한창 사춘기를 겪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C-6은 운동에 소질을 보이며 농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경기도 내 농구부가 있는 중학교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상태도 아니고, 농구를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다니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C-6은 그저 친구들과 농구를 열심히 하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C-6은 농구부가 없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면접을 마치고 조사원은 C-6의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C-6의 아버지는 자신의 현 가정이 재혼가정임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C-6의 꿈, ‘농구선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C-6이 농구선수를 할 만큼 소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농구는 그저 친구들과끼리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구팀이 있는 중학교 진학을 알아본다거나 관련 학원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뿐이라 일축했다. 작년까지 학원에 보내봤지만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고 통 공부에 흥미를 갖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학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것이 설령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구별 짓기 효과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일반 아이들과 동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쏟아줄 것을 부탁했다.

C-6 가정의 경우 재혼한 어머니 역시 전처소생인 C-6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사회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 동시에 자신 소생의 자녀들의 양육 뿐 아니라 C-6의 진학과 진로까지 모두 고민해야 하는 이중고 혹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재혼을 했더라도 재혼한 부 또는 모가 한국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국동포 출신이나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혼 전 출생한 전처소생 자녀와의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례가족 7> (C-7(여)/ M-7)⁶⁾의 경우 조선족 출신인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 중국유학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정도로 관심이 있으나 정작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인 C-7은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새어머니에게 주지 않는다. 이 경우 새어머니는 자녀의 성적, 장래 희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진학과 진로 계획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면접원 학교에서 통신란이 있잖아요. 성격이나 그런 거... 그런 거는 잘 나오나요?

M-7 통신란 같은 거... 애 성적... 그런 거는 내가 못 받아봤어요.

면접원 성적표?

M-7 성적표 없는데...

C-7 있는데...

M-7 애가 집에 와서 안 줘서 그런 거야...

면접원 그럼 누구한테?

6) M-7은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한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으며 재혼한 남편과는 1997년에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하였다. 현재 남편은 근처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M-7은 3년 전 거주지 주변에 비교적 규모가 큰 음식점을 개업했다.

C-7 아빠.

면접원 아빠한테 왔다고?

C-7 네.

M-7 그래,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성적표 어떻게 나오는 거. 아빠한테 하면 아빠가 말해주는 편이잖아. 그래서 나 성적표 한 번도 못 봤지. 물어보면 기분도 좀 그래가지고... 애 아빠는 그냥 내버려두래...

면접원 엄마도 한번 보여드려줘 봐.

M-7 글썄, 나도 한번 보여 줘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하...

사례가정 5, 6과 같이 재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자녀의 진학과 진로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가족관계의 양상으로 인해 자녀가 가족들이 즐겨 쓰는 언어인 중국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 언어 자체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례가족 1>(C-1(남)/ M-1)의 C-1의 경우 아버지, 형, 어머니 모두 중국에서 이주했으며 현재 아버지는 C-1의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전남편인 중국인(C-1에게는 새아버지)과 재결합한 경우이다. 가족들 모두는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C-1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 그만큼의 중국어 실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내의 중국어 사용은 C-1의 소외감을 심화시킬 뿐이다.

면접원1 형도 중국어 쓰고. 형이랑은 한국어로 대화하니? 어떻게?

C-1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저는 중국어는 못 쓰는데 알아 들어요

M-1 할 줄 모르는데 알아듣죠. 우리가 계속 중국어 하니까

면접원2 중국어로 하는 거는 알아듣는다고?

C-1 네

면접원1 엄마, 아빠랑은 주로 중국어를 쓰시죠?

M-1 네, 우리는 쓰는데 중국어를 많이 하지요

C-1 그것 때문에 저는 외톨이에요

면접원1 아 중국어를 다 쓰는데 너만 못쓰니까?

C-1 아니요 못 쓰게 아니라요, 뭔가 제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비웃는것 같아요

면접원1 그래? 아 그래 중국어만 하면 웃고 떠들면 자긴 못 알아들으니까 비웃는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나나 보죠?

C-1 일부러 전에 형이 가르치려고 중국어 많이 했지요. 중국말 배우라고. 안배우려고 해요 알아듣는데 어려운거는 못 알아듣지요. 간단한건 알아듣는데.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서,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3.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의 문제

1) 부모 출신 문화와 언어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들의 태도

면담을 수행한 다문화가정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외국출신이라서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외국에 있는 고향을 방문하고 나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된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세련된 도시적 인상을 주는 일본보다는 그렇지 못한 중국 쪽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이중언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습득이다. 즉 해당 부모 국가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가 많이 등장함으로써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출신국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경우이다. <사례가족 2>(C-2(남)/ M-2)에서 M-2의 경우 중국어 강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자녀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어렵다고 말한다.

면접원 중국어만 잘 해도 중국어로 갈 수 있고(외국어중, 외국어고 등으로 진학할 수 있고)...

M-2 근데 사실, (자녀가) 중국어를 싫어해요. 중국도 싫어하고. 뉴스에서 맨날 그 중국에 대한 그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중략) 그러니깐 애들이 이미지부터 중국은 왜 계속 나쁜 일만 해? 중국제품 다 나빠.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M-2는 자녀의 그러한 태도를 바꾸어 중국어 학습을 유도하기 보다는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권하는 수학이나 영어 쪽을 준비하도록 권하며 현재 자녀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자녀 역시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부정적 인상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영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C-2는 설령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에 필수적인 한자 학습이 어렵고 주변에 중국어를 배울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가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부모/자녀’라는 관계상의 차이와 특징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사례가족 4> (C-4(여)/ M-4)의 경우와 같이 교회(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를 매개로 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이들 엄마들은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아주 높은 편이다. 이들은 매일 일터에 나가야 하고 작업 자체가 육체적 노동이 많은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부모’와 ‘자녀’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자녀가 일본어를 잘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실제로는 부모가 가족관계 내에서 표출되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면접원 혹시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나요)?

M-4 네, 있으면 좋죠.

면접원 대개는 다문화가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다, 제일 장점인데요.

M-4 네. 그런데 집에서, 가정에서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면접원 그런 데 실제로 그게 어려운가요? 두 가지 언어를 한다는 게.

M-4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집에는, 제가 아는 어떤 집에는 엄마가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일본어를 많이 하다보니까 애가 생활하면서 많이 들으니까, 집에서 일본말을 배우니까, 엄마가 일본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본말을 잘하는 아이도 많지만, 그런 가정도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집에서 하면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거기까지 못 돼요. 어려워요.

면접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혹시 조언을 하러 오는 분이 오면 괜찮나요?

M-4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좋고. 솔직히 가르친다는 자체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특히 자식이니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고,

자연스럽게 배우면 좋기는 한데...

이상과 같이 이중언어라는 것은 부모가 외국출신이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자녀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선입견이나,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활용도, 부 혹은 모에게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감정적 관계에 따라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2) 자녀의 예체능에 대한 관심과 부모의 태도

본 연구의 사례가족 중 대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은 자녀들이 예체능, 특히 체육 쪽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업성적의 부진 탓에 다른 재능을 찾아보려는 자녀들의 태도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체육 분야가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의 가진 체육특기에 대해 대부분 ‘그러다 말겠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체육 특기가 진로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해 자녀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다거나 상급학교의 축구부에 문의해본다거나 오디션을 본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례가족 8>(C-8(남)/ M-8)의 경우 가정 형편의 어려움을 알고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숨겨 오다가 이번 조사를 기회로 자신의 희망을 어머니에게 처음 털어 놓기도 했다.

면접원 축구선수는 되고 싶어 한국에서? (네) 하고 싶어? (네) ○○아 너 진짜 프로축구하고 싶어 진짜로? 그렇다네요. 지금 포지션이 뭐야 미드필더 이런 포지션?

C-8 골키퍼

면접원 골키퍼 애들이 하라고 해? 골키퍼는 약간 등치가 있어야 되는데? 커야 되지 않아?

C-8 잘 막으면 되요

면접원 잘 막어? 네가 점프력이 되나보다. 좋아하는 축구선수 누구야?

C-8 박지성

7) M-8은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으로 1997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현재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나 앞으로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중략)

면접원 학교 특별활동 축구부에서 축구해?

C-8 네.

면접원 아, 주로 특별활동에서 축구를 하는구나.

M-8 학교는.. 애네 학교는 그계(축구부) 없다니까요

면접원 팀은 없네요. 축구팀이 없어요.

C-8 신청하면 되는데... 축구선생님이 화성 축구단 하시는 분이라.

면접원 아 그분이 와서 특별활동 지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지금 하면 되? 언제해야 돼?

C-8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면접원 언제든지 할수 있어? 그러면 거기 주니어 축구단에서 시험 나가고. 그래 그럼 엄마한테 얘기안했어?, ○○FC(football club)?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M-8 (자녀가) 얘기 안했어요.

면접원 보니까 특별활동 선생님이 화성주니어 축구단에 주니어 축구단의 감독이신가봐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화성에 주니어축구단이 돼서 다른 FC 주니어 축구단하고 시험을 해서... 애(C-8)가 그렇게 가는 것을 알고 있는거 같은데...

M-8 ○○야, 다음에 가면 전화번호 갖고 와.

C-8 전화번호 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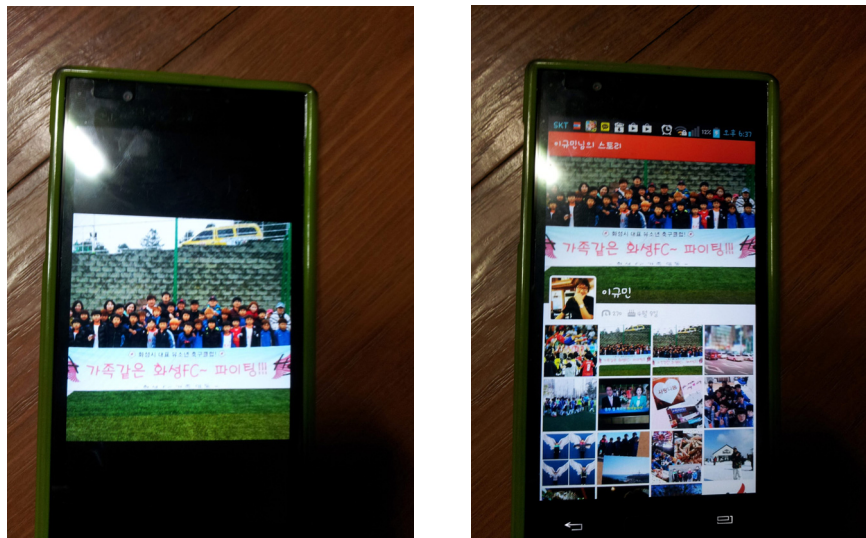
면접원 있어? 어머니 처음 아신거예요? 아 이걸 넌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했어?

C-8 네.

면접원 처음 얘기하는 거네.

C-8 신청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면접원 어 신청서 같은 거. 아, 신청서가 왔었나봐요 어머니.



【그림 III -1】 C-8 군이 7개월 전부터 핸드폰에 모아놓은 화성FC 사진

C-8은 그동안 꾸준히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FC축구단/리그에 들어가고자 남몰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C-8이 보여준 자신의 SNS '카카오토리'에는 7개월 전부터 이미 ○○FC에 대한 자료를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C-8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여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M-8의 경우 C-8이 매우 예민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강압적인 교육이나 훈육으로 인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가정 형편은 못 되었으나 C-8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원이란 것은 자녀의 희망과는 상관없는 자녀의 중국 유학이었다. 몇 해 전 그녀의 고향에 갈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그런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아이의 유약한 성격상 유학생생활을 잘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C-8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예체능에 대한 관심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부모들 표현대로 실제로 재능이 없는데도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녀들의 관심에 대한 부모의 태도일 것이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신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방식에만 익숙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점차 무조건식의 공부보다는 다양한 취미와 재능을 살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문화청소년들 역시 부모의 연결선상에서 부모의 희망과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와 상이한 가치관들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한국에 이주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이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며 자녀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잘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향과 적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족원들에게 전달해 주어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 전달에 앞서 이주민 부모세대와 그 자녀세대간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함보다 평범함을 택한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에는 남들과 다르기 보다는 극단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가족 9>(C-9(남)/ M-9)⁸⁾의 경우에는 인터뷰하는 내내 모든 질문에 ‘평범하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한다.

면접원 C-9는 운동 잘해?

C-9 평범해요.

면접원 무슨 운동 좋아해?

C-9 그냥 아무거나...

(중략)

면접원 친구들 관계는 작년도 보니까 좋다고 하는데 여전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있으면 주로 뭐해?

C-9 그냥 놀아요.

면접원 노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 먹는 것도 있고.

8) M-9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일본인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 현재 남편은 일본어 과외 강사를 하며, M-9는 백화점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한국에 이주한지 20년이 되었지만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며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C-9 그냥 평범하게 놀아요.

(중략)

면접원 C-9야 학교 선생님이랑 요즘 어때?

C-9 별로, 평범해요.

면접원 평범하다는 단어 많이 쓰는구나. 평범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C-9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례는 한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경우라는데 문제가 있다. C-9의 경우 옷에서 옷장냄새(나프탈렌 냄새) 혹은 된내가 난다고 학생들이 짝으로 같이 샅기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교육 과정에서였다. C-9가 학교교육 내에서 '특수한 존재'라고 인식된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특수반의 존재이다. C-9의 담임선생님인 T-19)에 따르면 C-9가 4학년 때부터 특수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학습부진이 심하며, 자신이 일본사람으로 특별하게 불리기를 싫어한다고 한다. A초등학교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반을 편성하여 학습부진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C-9의 경우에도 다문화청소년이자 학습부진아여서 4학년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참석률은 지극히 낮았다고 한다.

T-1 애네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 현장학습도 가고, 같이 모여서 수업도 하고 했는데... C-9 같은 경우는 5학년 때부터 가지고 않고, 4학년 때도 같이 모여서 수업하는 데는 안 가고, 현장 학습 어디 놀러 갈 때는 같이 가고 그렇게 참여도가 되게 낮았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는 아예 안 가고...

면접원 그 캠프는 어떻게 꾸려지는 건가요?

T-1 여기 특수반 선생님이 계세요. 특수반 선생님 지도 하에 애들이 가는 거 같아요..

면접원 특수반 교실이 따로 있어요?

T-1 네.

면접원 다른 학교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수반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9) C-9의 담임선생님이며 작년까지 강남구에 소재한 H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올해 성동구의 A초등학교로 전근을 왔다. 전에 근무한 학교에서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여러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이해하고 있었고, C-9에 대해서는 전(前) 학년 담임선생님에게서도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고 한다.

T-1 대부분 그 아이들이 부진이 많아요.

면접원 어떤?

T-1 부진아. 책을 잘 못 읽는다던가. 다문화 아이들이... 그렇게 부진아 선생님하고 엮으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부진아 선생님들은 지속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특수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지도하시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특수반 프로그램은 다문화 프로그램과는 다르지만 특수반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C-9는 이 특수반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특수반 선생님을 만나도 못 본척하고 도망쳤다고 한다.

T-1 (특수반이) 특별히 다문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특수반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 애네한테 좀 더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C-9가 거길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개가 거길 아예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 C9가 그 특수반 선생님만 보면 못 본 척하고 도망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원 그 선생님은 여자 분이세요?

T-1 네, 여자선생님. 애가 생각하기에는 특수반이 공부 못 하는 반이라고... 애도 몰라도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자길 놀릴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애가 되게 소심한 아이라...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 만나도 괜히 저 선생님이 날 아는 척하면, 다른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서인가... “선생님, C9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하고 놀래서 왔더라고요.

학습부진아는 학기 초에 기초학력고사를 치러서 60점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학습부진아의 특별반 교육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신청서를 받아 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9의 경우는 수학이 20점정도로 구구단도 못 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¹⁰⁾ 실제로 학습부진아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는 다문화청소년이었다. 따라서 학습부진아이면서 다문화청소년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인 학습부진아 교육과는 달랐어야 했다. 그러나 학교에 다문화교육을 따로 이수한 교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10) T-1의 집중적인 지도로 C-9는 구구단을 6학년 초에 모두 외우게 되었다고 한다.

T-1 다문화 교육을 하려면 특별히 그거와 관련된 사람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하려면 자기네 반 외에 또 가외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방과 후에 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또 하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그걸 100% 이해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연수만 다녀오셔서 가르쳐야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에서도 그런 걸 한 거 같아요. 다문화교사들을 모집해서 조선족에게 중국어 가르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중부교육청에서 몇 명,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원을 해주니까 모두 다 못 해주니까... 여기도 강사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학교선생님들이 해야겠고, 학교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해야 하는데... 애가 부진아 랑도 연결되니까 이왕이면 특수반 선생님이 하시는 게 낫겠다,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대화나 교육 내용 중에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역사를 배울 때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역사 교과목이 5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은연중에 일본인은 ‘일본놈’, ‘나쁜놈’ 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본인이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민감한 C-9가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었다는 것이다.

면접원 주변 아이들이 아버지가 일본사람이라고 놀리는 건 없죠?

T-1 놀리진 않는데... 그거 얘기하는 걸 애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면접원 일본 얘기 하는 거를?

T-1 네, (선생님이 C-9의 모습을 묘사해주었는데 시큰둥한 목소리로) ‘저 일본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는 친구들과 자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 못 하는 거는, 다른 애들도 그런 거니까 괜찮은데 ‘나만 왜 아빠가 일본 사람이야?’ 그리고 작년에는 애네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6학년 때는 역사가 별로 안 나오지만 5학년 때는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대부분 일본 놈 나쁜놈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5학년 때는 역사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고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C-9의 모습을 묘사해주었다) 그때는 일본 애들 두 명이 다 같은 반이었대요. 근데 그 두 명이 다 죄인처럼... 지네가 잘 못 한 것도 아닌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6학년 때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발전, 그런 거 할 때 가끔씩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C-9가 또 그래서... “야, 옛날 일본 사람이 그랬어. 요즘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하고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애는 그 일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괜히 주눅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면접원 5학년 때 역사를 가르칠 때 그 담임선생님은 그걸 고려를 안 하셨나보죠?

T-1 근데 역사를 배울 때는 선생님이 애를 아무리 배려해준다고 해도 개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일본 놈 어찌구, 저찌구 하면... 애는 '우리 아빠 일본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충격을(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리 완화시켜 주려고 해도 애한테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의 교육과정 중에서 습득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자각은 일종의 정신적 외상(trauma)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표출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에서 '부모 나라의 옷 입어보기'와 같은 체험적 행사에서조차도 C-9는 소극적이지만 거부와 저항의 행동을 표출한다. C-9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린다.

T-1 애가 그걸 좀 달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가 뭐 옛날에 태어났던 일본 사람도 아니고 지 생각으론 '우리 아빠는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일본, 중국, 필리핀 이 세 가지가 왔는데... 같이 와서 두 시간동안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 애기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좋아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빠 이야기고 아빠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나도 입어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데 끝까지 안 입겠다고... 그래서 제가 "C-9야 이리와 봐, 너만 입는 게 아니고 친구들 다 입어봤잖아. 너도 한번 입어봐... 한번 입어봐" 이랬더니... 겨우 껴서 입고...

이상과 같이 C-9가 추구하는 '평범함'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한 개인에게 전달되는 특별함, 차이, 다름 등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별함, 차이, 다름은 다문화주의의 기본적 논의 틀이다.¹¹⁾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발달단계의 아동청소년에게 아무런 배려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전달된다면 심각한 스트레스나 낙인화의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C-9의 극단적인 평범함의 추구는 한편으로는 특별함, 차이, 다름이라는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되는 것에 대한 간파의 과정이자 처절한 저항의 방식일 수 있을 것이다.

11) 다문화주의의 핵심개념으로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 혹은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를 들 수 있다 (Kymlicka 2002: 332-333).

T-1 (C-9는) 그냥 평범한 어른이 되고 싶대요. 애는 마음속으로 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거예요.

4) 부모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다문화청소년들의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들의 문화는 아버지 출신국의 문화도 아니고 어머니 출신국의 문화도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로서 부모들조차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사례가족 10> (C-10(여)/ M-10)¹²⁾의 M-10은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학교에서는 폭력적이고, 사회에서는 질서가 없고, 절제하지 않으며, 가정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른들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는다.

M-10 한국 엄마들이면 정보 있고 경제력 있고 강한 엄마들이라면 (자녀들을) 끌고 갈 텐데 그것을 (제가) 못하더라고요. 일본 아이들이라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피가 섞이다 보니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상상 밖이에요.

면접원 예를 들면요?

M-10 너무 ‘와일드(wild)’해요(제멋대로 굴어요). 일본 애들이면 ‘안 돼, 이걸 하루 한 개야’ 라고 하면 한 개만 먹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면접원 일본은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이것 해라 하면 하고.

M-10 ‘가지 말고 있어’ 라고 하면 여기 있고. (그런데) 여기(가평의 다문화가정)는 없어요. 한국 애들이 다 그렇죠?

면접원 보통 그렇죠. 일본과 딱 비교한 적은 없지만 일본 문화나 영화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한국 아이들은 좀 더 자유분방한 것이 있죠. 일본 친구들이 좀 더 엄격한 태도를 갖고

12) M-10은 일본에서 대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의 ○○여대에 유학 왔으며 통일교를 믿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현재 가평의 통일교 청심교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면접대상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 C-10을 포함해 중학교 3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총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M-10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C-10의 성격과 특성,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교육문제에 대해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방학 중 일본 친정집 방문도 잦은 편이다. 아이 넷 중 셋째 C-10과 넷째 아이를 장래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낼 생각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를 구체화한다거나 하지는 못한다. 또한 특기 적성이나 외국어교육을 위해 사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제적 형편이 좋은 집단은 아이들을 해외 유학 보내는 일이 잦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고심하고 있다.

있죠.

M-10 부모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성품인 것 같아요.

면접원 사회 분위기겠죠.

M-10 문제는 그런 아이라도 학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잡을 줄 알아요. 잘 지도하는데. 다문화 애들은 어딜 가서 들어도 질서 없고 말 안 듣고 장난 심하고 어른들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어른이 안 무서우니까.

M-10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부모, 구체적으로는 외국출신 어머니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자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M-10 은 외국인 출신부모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고 체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면접원 다문화 가정으로서 아이를 위해 건의하고 싶으신 것이 좀 있으세요?

M-10 다문화에 맞는 부모교육. 다문화 엄마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문화 엄마가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하는데.

면접원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파견을? 전문 상담사가 나와서? 부모끼리 모임을 만들어 주는 것?

M-10 상담보다도 우리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강의를 받고 싶어요. 시스템을 받고 싶고. 그런데 너무 비싸면 곤란하고.

면접원 예를 들어 어디 강당에 모여라 해서 교육 전문가가 와서 다문화 가정들이 이런 전략을 가지면 이런 학교에 갈 수 있고,

M-10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아직 필요 없으니까.

면접원 그러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M-10 그런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데 학부모가 잘 못 키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부모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면접원 진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M-10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완전 다른 문화 아이들이죠. 자기가 낳았지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이해 못하죠. 엄마가. 우리 아빠(M-10 씨의 남편을 지칭)는 그나마 도와주는 편이지만 하나도 안도와주는 아빠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도 신경 써야 하고 애들도 못 잡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그런 엄마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M-10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출신 부모를 위한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담소 및 여러 대학교에서 가평균에 거주하는 외국출신 부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한다. 문제는 그동안의 부모교육 방식과 교재가 외국출신 부모 혹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주류사회의 부모, 즉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것이어서 외국출신부모가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M-10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와 민간단체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아직까지도 다문화가정 부모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미흡하다고 말한다.

M-10 (그동안) EBS 자료를 가지고 많이 교육은 해주셨어요. 대화법이나 교육법이나...

면접원 누가요?

M-10 여러 상담소에서 와서 해주고 학교에서 온 교수님도 하시고 그런데 다 한국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면접원 다문화 가정 포커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네요).

M-10 일반적인 학부모 교육, 일반적인 자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가져와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이죠.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면접원 다문화 교육을 내세웠는데 그 자료들이 다 한국인을 위한...

M-10 다문화 엄마를 위한 자녀지도는 없어요. 자녀지도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한국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죠.

면접원 전혀 공감이 안 되죠.

M-10 들어봤자 못하는데.

면접원 나랑 다르고.

M-10 네. (다문화가정) 엄마가 (비디오자료나 교육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부모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출신 부모 및 자녀라는 세대적 특수성을 고려한 외국인출신부모에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이주민 집단 공동체 속의 다문화청소년

앞서 논의한 A초등학교와 같이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의 수가 적어 그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소수인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렇게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적은 학교들은 다문화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으며 소수를 대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들을 학교의 사회복지실, 특수반 등에서 장애우나 학습부진아들 위주로 편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다문화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다문화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 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지 중 한 곳인 경기도 가평지역의 경우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집단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 공동체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 방과 후 생활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판이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전체 학생 수의 약 50%가 넘는¹³⁾ B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다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존재한다. 특히 이 지역 다문화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학교폭력, 특히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따돌림의 양상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3) B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36명이며 그 중 160~170명이 다문화청소년이다. 즉 이들 자녀는 양친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며, 그 중에 80% 이상이 양친 중 한명이 일본인이다. 특히 어머니가 일본출신자들인 경우가 많다.

1) 가평지역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와 방과 후 생활

(1) 학교

가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단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안산, 시흥 등과 공동체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우선, 종교단체 신도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둘째는 집단거주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종교단체의 계획에 의해 집단적으로 주거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대개 통일교 C재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¹⁴⁾ 자녀들 역시 거의 대부분 교회신도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 중 한명(특히 어머니)의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가 많다.



【그림 III-2】 B초등학교의 교실 표지판과 계단

따라서 이곳의 자녀들은 중도입국자들이 포함된 다른 다문화가정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한국어에 능통하다.¹⁵⁾ 그 대신 오랫동안 같은 출신국 부모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탓에 외국출신 부모들이 자녀에 비해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다.

B초등학교 6학년의 담임을 맡고 있는 T2(남) 교사는 다른 다문화청소년들과 달리 B초등학교에

14) C재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만도 1,000명이 넘는다.

15) 자녀들의 국적은 어머니가 귀화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영주권자여서 아이들은 이중국적의 상태에 있다.

다니는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오히려 주류(mainstream)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는 소외감이 없다고 말한다.

T-2 (B초등학교의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른 다문화 쪽 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걸 알고 들어오셔야 해요. 그리고 애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거나 그런 거 없구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다문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문화라고 볼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국적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국어 말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잘해요. 엄마들이 한국어가 서툴지,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엄마는 영어를 못하지만 자제분들은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애네들은 소외감 느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반도 뭐 반 정도가 다 똑같이 일본인이시고, 개들이 오히려 주류예요.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내국인들끼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아이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뭐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은 있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과... 많다고 할 수 없죠. 주류니까... 애네들은 소외감 느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반도 뭐 반 정도가 다 똑같이 일본인이시고, 개들이 오히려 주류예요.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내국인들끼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아이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뭐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은 있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많다고 할 수 없죠. 주류니까...

B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다문화축제, 다문화와 관련된 체험활동, 글로벌체험학습 등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학교 예산 중 이러한 다문화관련 예산은 20~30%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 내 시설에도 다문화체험실이 있어서 세계의 여러 의상들을 가져다 놓았으며 급식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멕시코 음식 등 세계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학교 내에는 학생들이 다문화 의식 혹은 다문화 감수성을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해 놓았다. 그 사례로 [그림 III-2]와 같이 학교 내의 각 교실과 화장실 등의 표지판에는 한글 밑에 영어와 일본어 표기가 병기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단 등에도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표어들이 붙어있다. 표어에는 ‘인사말은 다르지만 우린 모두 친구예요’,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우린 같은 세계인!’, ‘얼굴색이 달라도 마음은 하나’, ‘인종차별 없는 나라 세계로의 지름길!’,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 ‘한국인의 눈에서 세계인의 눈으로’, ‘국적과 인종을 넘어 우리는 모두 이웃’ 등이 있다.

(2) 교회

통일교 C교회가 있는 곳은 시골이라기보다는 주변 상가(음식점, 슈퍼, 영어학원 1곳)와 빌라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통일교 C교회의 신도는 총 800여명이며 아동청소년은 이 중 300여명에 이른다.



학년	시간	과목	교사	수업	비고
초 1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1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초 2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2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초 3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3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초 4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4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초 5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5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초 6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초 6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중 1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중 1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중 2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중 2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중 3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중 3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고 1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고 1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고 2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고 2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고 3	09:00 ~ 10:00	영어	정지영	수업	
고 3	10:00 ~ 11:00	수학	정지영	수업	

【그림 Ⅲ-3】 C교회 전경(좌) 및 아카데미 시간표(우)

C교회 1층에는 예배실과 ‘아카데미’라고 부르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흡사 학원과 비슷해보였다.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밑의 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공부방이 따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아카데미 외에 별도의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교사 2명과 교인들의 어머니들이 각 과목들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초급, 중급으로 반이 나뉘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방들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다. 시간표를 보니 영어, 수학, 독해, 독후감, L/C, 논술, 미술 등을 배울 수 있고, 한 방에서 아이들이 자습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방과 후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보였다. 교회에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오전 7:30부터 저녁 9:10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거주지역과 직장, 학교를 순환하였다. 자녀들은 대개 학교수업을 마치는 2시 50분 경 학교를 순환하는 이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에 와서 공부방에 들어간다.

2) 다문화청소년들의 '왕따'(집단따돌림)의 양상과 그 원인

(1) 왕따¹⁶⁾의 발생 및 표출의 양상

가평지역의 B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주류로서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소수자가 되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다문화가정 거주지역과 다르게 내국인과 외국인출신 부모의 자녀 간에는 차별이나 왕따(집단따돌림), 놀림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역 B초등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문화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왕따'이다. 이것은 외국인출신부모의 자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양상은 지극히 폭력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은커녕 피해학생이 계속 양산되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부각될 정도이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내 왕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띤다. 우선 교실 내에 일종의 '파(派)'가 형성된다.

- T-2 애들이(다문화청소년들이) 파가 세요. 그 파가 세니까... 흔히 말에 거기에 끼기 싫어하는 거예요. 재들도 알아요. 우리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구나...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 면접원 반이 그러면 그렇게 갈라져요?
- T-2 여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아니고... 여자애들 특히 한 세 파트... 따 시키는 애, 따 당하는 애, 약간 좀 '아웃사이더 1', '아웃사이더 2'... 뭐 그러 식으로 나뉘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른 세계랑 똑같아요. 축소판이에요. 애들이 심성이 착하고 좀 대가 약하면...절대로 왕따를 못 시켜요. 무리를 못 만들어요.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대가 썩 애들은 안 그렇거든. 근데 어느 학교나 다 이런 거는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있고.... 애들이 확실히 좀 더 억압된 게 있고...

다문화청소년들의 왕따는 우선 집단 내 소규모 파가 구성이 되면서 발생한다. 우선, 일반아이에 비해 기질적으로 드센 여학생이 무리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왕따를 당하는 집단과 아웃사이더

16) '왕따'는 학급에서 나타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 지역 교사나 학생들이 지칭하는 말이다. 집단따돌림은 아직 용어의 통일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지메'라는 표현이 있고 서구에서는 'mobbing', 'bullying'등의 용어가 있는데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남인숙, 2004: 64-65).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은 피해자가 자신이 따돌림 받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수의 동급생으로부터 심리적 무관심과 배척을 당하며 심지어는 집단적인 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이상균, 2003: 2).

집단이 발생한다. 이 집단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합집산을 거친다. 그래서 관계가 역전되어 왕따를 하던 아이가 그 다음 해에는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한다. ‘왕따’가 실제적인 행위로 표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면접원 공격하는 말들 중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도 뭔가 상대방이 잘못 된 행동을 했을 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T-2 수업시간에 하는 건 전혀 없고. 뭐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 띄우거나 아니면 찌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 돌아가면서 “재하고는 놀지 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런데 애네들이 친했어. 그런데 애가 다른 애에 대해서 약간 좋지 못한 말을... 부풀려서 했어...(선생님이 음료수 병을 놓고 설명을 해주셨다) 즉 친구 A, B, C 셋이 있는데 A가 B와 친하게 지낼 때 C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된다. 그 과정에서 B가 A에게 C에 대한 험담까지 하고 지낸다.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로 A와 C가 친하게 될 계기가 형성되었을 때, A는 C에게 “B가 과거에 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고자질을 하면서 친목을 다진다. 그 결과 C가 B를 싫어하게 되고 이번에는 B가 왕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왔다갔다 패가 갈라지고 왕따가 만들어진다. 이래서 울고불고 난리난 적도 있었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습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2명이 이러한 집단적 왕따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담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만 왕따 행위가 잠깐 멎을 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일이 많다.

(2) 왕따의 원인

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왕따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들이 유치원 이전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두 같은 교회, 유치원, 학교 등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보면 서로간의 관계가 너무 일상화되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일으키는 ‘왕따’ 행위에는 그 ‘특별함’을 넘어서는 욕구불만과 분노가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중 왕따 행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질 및 행동특성을 요약해보면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의 불만과 함께 분노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분노를 어느 순간 ‘폭 터뜨리는’ 과정을 겪는데 이것이

바로 ‘왕따’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한국인 자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왕따’는 욕구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더욱 심하게 왕따 행위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T-2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불만, 분노성향, 분노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꼭 터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개네도 개네들끼리 갈등이나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의 갈등이 조금 더 정도가 심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까 그래서... 뭐, 왕따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있던 학교는 왕따도 한번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 잠재된 학생들이... 잠재된 불만이나 아니면... 표출되지 못한 분노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 전 확실히 느껴요.

욕구불만과 분노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개의 경우 가정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정생활의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많은 편이며 부모의 경제생활이 어려울수록, 가정 내 갈등이 높을수록 욕구불만과 불만족의 정도는 더욱 높게 나타난다.

T-2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쌓였던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요 하나의 단체(교회), 거기에서 얻게 되는 갈등, 그쪽에서 기인하는 갈등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애들도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어려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다문화가정에서 나타나는 부부간 갈등, 문화의 차이, 다자녀라서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돌봄 부족도 포함된다.

면접원 어렵다는 건?

T-2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서로 두 분이 만났는데... 물론 서로 좋아서 결혼하셨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서 연애하고 뭐...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셨겠죠. 그래도 생활수준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없을 순 없겠죠. 서로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이거는! 이 애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는 데...(중략) 제가 본 바로는 아이들이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고 내적인 갈등이 애들은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가정이 어려워.

면접원 경제적으로?

T-2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부부 사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게 막 쌓이는 거야.

면접원 대화도 잘 못 하더라구요, 자녀와 부모가... 일단 애들이 많더라구요. 네 명...

T-2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도 힘들다... 많이 바쁘시겠지. 애들을 관리를 못 해. 낳았으면 교육을 시키고 인성적인 면이나 학업적인 면이나 관리를 해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알려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뭐 지적 역량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실제로 <사례가족 11>(C-11(여)/ M-11)¹⁷⁾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그 중 아들이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어머니 M-11이 치료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니느라 특별히 막내인 C-11에게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다. 어머니는 C-11이 대견하게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C-11은 이미 학교에서 왕따를 일으키는 주요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문화청소년 모두 욕구불만과 분노에서 비롯된 왕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부모의 계층과 신분이 높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도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업수준은 상위권에 속한다.

T-2 그렇지 않은 집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17명이 다문화인데 그 중에서 세 명 정도는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세 네 명의 가족은 통일교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야. 의사라든가, 뭐 △△수련원 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애들 관리를 해요. 근데 일반 가정의 애들은,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을 하시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요.

3) 왕따의 해결책과 다문화청소년의 미래

T-2는 왕따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회와 부모, 그리고 왕따 당사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은 구조적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이 경우 전제되어야 할 것은 기존의 다문화프로그램과 왕따의 해결방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즉 B초교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많아 다문화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에서 이러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

17) M-11은 통일교가 계기가 되어 일본인인 Y와 결혼하여 4자녀를 두었다. 남편은 사업상 일본에 주로 거주하면서 2개월에 한번씩 15일 정도 한국에 머무른다. 어머니는 현재는 제과점에 근무하고 있다.

램들이 ‘왕따’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따는 다문화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면접원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면... 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더 나아지는 건 없나요? 선생님? 이 학교자체가 다문화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문화 쪽으로는 나름 선도하는 학교로...

T-2 형식적인 게 있고, 그 형식적인 걸 통해 얻게 되는 내실이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형식적인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좋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과연 애들이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이런 애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세계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와 같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애들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글썄요. 약간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 같아요. 오히려 상담을 더 진지하게 잘 받거나 마음을 열고, 자기들이 이제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 수는 있겠죠. 다문화 프로그램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과 같이 다문화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왕따’는 각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가 집단 내에서 복합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의 왕따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남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심리검사 척도의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 IV 장

결론 및 제언

제 IV 장 결론 및 제언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으로 상급학교인 중학교 진학이라는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연결망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을 파악해보면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절대적 부족,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의 상대성과 피상성, 사회적 연결망은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해와 해석을 보인다.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한다’는 답변이 많다. 이것은 진심으로 아이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다기 보다는 맞벌이로 인해 아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릴 것을 걱정한다거나 부모의 정보력이 부족해서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연결망이 비교적 좋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에도 외견상일 뿐으로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경제수준이 높고 교육의 경쟁의 심한 환경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과 함께 사회적 연결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사회적 연결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종교적 공동체의 소속된 경우에도 종교방침 상 다자녀를 장려하고 있어 실제적인 양육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부부의 이혼 및 재혼 여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학과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간 사생활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생계 및 자녀의 진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공동체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는 ‘소문’, ‘평판’ 등의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전혀 소생 자녀관계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세대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는 부모의 출신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녀들의 부정적인 태도 및 부모-자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한 이중언어 교육의 어려움, 예체능에 대한 자녀들의 관심과 부모의 방관적 태도, 다양함보다는 평범함을 선호하

는 극단적인 정체성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대중매체의 부정적 보도 여부에 따라 부모출신 문화와 언어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이중언어교육으로의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현 세대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예체능에 대한 많은 관심인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양상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자녀가 가진 재능들에 대해 대부분 ‘그러다 말겠지’ 식의 방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특기가 진로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해 자녀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다거나 상급학교에 문의해본다거나 오디션을 본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대관계의 또 다른 양상으로는 다문화청소년 중에는 다양함보다 평범함을 택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들과 다르기 보다는 극단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례는 한 개인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자녀의 정체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에 대한 부모의 이해부족 역시 세대간 차이와 단절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다문화가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방과 후 생활이 일반적인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판이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난다. B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다문화청소년이며 다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소수자가 되어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다문화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왕따’(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문화청소년들 사이에서의 왕따 현상은 가정의 경제사정, 부모의 문화적 차이, 다자녀로 인한 돌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상과 같이 ‘전환기’에 놓인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진학과 진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과 이해가 바탕이 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전환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문화가족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와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이들은 그 해결책으로 자신들만의 인종적·민족적 혹은 종교적 게토(ghetto)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가평의 집단공동체의 사례가 시사하고 있듯이 집단 내부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이 잘 갖추어진다하더라도 자녀의 교육이나 세대간의 차이 및 갈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게토화보다는 다문화가족이 거주국인 한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된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김이선, 김인순, 이창호, 박준규(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홍석, 심혜숙(2009). 자기조절학습과 부모학습참여형태에 따른 전환기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수준. **상담학연구**, 10(4), 2321-2333.
- 남인숙(2004).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청소년 집단따돌림. **사회 이론**, 25, 59-84.
- 박영애, 원효종(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2(5), 713-735.
- 엄선영, 이강희(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4(3), 89-100.
- 유계숙(1999).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사회관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43-54.
- 유순화(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윤택림(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상균(200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관계망 분석. **사회복지리뷰**, 8: 121-138.
- 이수상, 장임숙(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회연결망. **한국문화정보학회지**, 42(4), 243-268.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포르테스(Portes) 2003(1998). 사회자본 개념의 기원과 현대 사회학의 적용,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공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pp.143-180). 서울: 도서출판 그린.

- Forner, N. (2009).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Immigrant Families, Nancy Forner(ed.), *Across Generations: Immigrant Families in America* (pp.1-20).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장동진, 장휘, 우정열, 백성욱 역(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과주: 동명사)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Massey, D. S., et. al, (1993). Theories of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ukadam, A., & Mawani, S. (2006). Post-Diasporic Communities: A New Generation. Simon Coleman and Peter Collins(eds.), *Locating the Field: Space, Place, and Context in Anthropology*, New York: BERG.
- Portes, A. (1993),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ortes, A., & Rumbaut, R. G. (2006) *Immigrant America*, Berkeley·Los Angeles·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mbaut, R. G. (1997). Ties That Bind: Immigration and Immigra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in A. Booth, A. Crouter & N. Landale(eds.),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pp. 3-45).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Rumbaut, R. G. (2007). Ages, Life Stages, and Generational Cohorts: Decomposing the Immigrant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lejandro Portes and Josh DeWind(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pp. 342-387). New York·Oxford: Berghahn Books.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and the main participants were multicultural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Because those sixth graders are expecting to have higher education near future in middle school, this period is a kind of 'transition period' for both tho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various but specific aspects of the situations and contexts wher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ace changes for higher education and career planning in the transition period,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parents' 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os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nd school and regional societies.

These factors may function independently in everyday lives as well as influence intertwined not only children's development and identity formation but also their family and regional society.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about multicultural children in transitional period.

First, in terms of economic status and social network,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experienced either the condition of economic shortage and the lack of social network, relative vulnerability of economic situation and superficial social network, or established social network with economic shortage, of which each condition can be understood and interpreted differently.

Second, parents' divorce or remarriage influenced strongly their children's higher education and career planning. When parents were divorced, it could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a couple's private life. In the case of multicultural family, however, parents' divorce or remarriage could worsen problems of livelihood and children's career planning as well as create cultural problems such

as 'gossip' and 'reputation' in their community and regional society.

Third,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can be explained by one of four conditions: children's negative attitude towards parents' cultural origin; difficulties for bilingual education due to the special relationship as parents and children; children's excessive interests in music, fine arts, or physical education and parents' unattended attitudes; and the selection of an extreme identity preferring commonness to diversity; the lack of parental understanding for adolescent children.

Fourth, in the areas where multicultural family resided collectively, schoolchildren's after-school activities were entirely different from non-multicultural counterparts. Surprisingly, bullying could sometimes occur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in these areas. The phenomenon of bullying was caused by parents' economic status,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the absence of parenting due to having many children.

As explicated above, multicultural children in 'transition period'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for their higher education and career planning in various situations and contexts. With understanding these specific situation and contexts, therefore, a variety of supporting strategi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should be design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children, transition perio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ocial network,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generation, bullying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영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한영근 · 허효주 · 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 · 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 · 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직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
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헌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교육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교육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 · 프랑스 ·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12-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00-7 94330

978-89-7816-724-6 (세트)